

<2019 경찰 1차 채용 가답안>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②	④	②	④	①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①	③	④	④	①	③	③	④

1.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역사가와 역사적 사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에 역사가가 없다면 사실은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궁극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이 끊임없이 겪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이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인 셈이다.

- ①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② 역사는 사실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카(E. H. Carr)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 ④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 과정은 객관적인 과거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1. 정답 ①

[자료 분석]

제시문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② 역사는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제시문은 E. H. Carr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문구로, 역사를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표현한 부분이 유명하다.
- ④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과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제시문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2. 한국의 구석기시대 문화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하였고 일부 막집도 짓고 살았다.
- ② 전기 구석기시대에는 찌개 같은 자갈돌 석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도 일부 제작했다.
- ③ 중기 구석기시대에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스페찌르개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 ④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간접떼기나 눌러떼기와 같은 방법으로 돌날석기를 주로 만들었다.

2. 정답 ③

[정답 해설]

-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채집과 사냥에 의존하였으므로 무리를 지어 먹을 것을 찾아 이동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 ② 구석기 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나 찌개같이 하나의 큰 석기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④ 후기 구석기는 좁고 긴 돌날을 사용했다. 돌날은 흔히 썰기를 대고 때리는 간접타격이나 눌러떼기의 기법으로 만들었다.

[오답 피하기]

- ③ 스페찌르개는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다. 르발루아 기법은 중기 구석기 시대의 석기 제작 방식이다. 단순히 둥근 형태의 돌을 만드는 방식에서 좀더 발전된 타제석기 제작 기법으로, 일련의 단계를 거쳐 돌을 떼어내 만든 독특한 면(위에서 보면 거북등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고조선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 ㉠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하는 문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管子)』이다.
- ㉡ 조선시대에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인정하고 있었다.
- ㉢ 위만조선(衛滿朝鮮)은 발달된 철기에 기반을 둔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 ㉣ 송국리식(형) 토기와 비파형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3. 정답 ②

[정답 해설]

- ㉠ 『관자』는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문헌 기록으로, 제나라와의 교역 사실이 나타난다.
- ㉡ 조선시대에는 기자동래설을 인정했으며, 사림파는 기자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이가 저술한 『기자실기』에서도 나타난다.

단군께서 제일 먼저 나시기는 하였으나 문헌으로 상고할 수 없다. 삼가 생각하건대 기자께서 우리 조선에 들어오시어 그 백성을 후하게 양육하고 힘써 가르쳐 주시어 머리를 틀어 엮는 오랑캐의 풍습을 변화시켜 문화가 융성하였던 제나라와 노나라 같은 나라로 만들어주셨다. - 기자실기 -

- ㉢ 위만 왕조의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고,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다.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오답 피하기]

- ㉣ 송국리식 토기가 아니라 미송리식 토기와 비파형동검의 분포지를 통해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4. 다음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확하게 나열한 것은?

- ㉠ 신라가 율령을 반포함
- ㉡ 고구려가 부여를 점령 후 복속함
- ㉢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함
- ㉣ 백제가 동진의 승려 마라난타를 통하여 불교를 수용함
- ㉤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
- ㉥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나·제 동맹을 맺음

- ① ㉡-㉣-㉤-㉥-㉠-㉢
- ② ㉣-㉡-㉤-㉠-㉥-㉢
- ③ ㉤-㉣-㉡-㉠-㉢-㉥
- ④ ㉣-㉠-㉡-㉤-㉢-㉥

4. 정답 ②

[정답 해설]

- ㉢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전사하였다(371).
- ㉣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384).
- ㉤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 비유왕은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해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433).
- ㉡ 고구려는 문자왕 때 부여를 완전히 복속하고(494)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 ㉤ 신라는 지증왕 때 이사부를 파견해 우산국을 정복했다(512).
- ㉠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다.(520)

5. 다음 기록에서 거론하는 인물이 묻힌 무덤은?

이름이 사마(斯摩)이고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중략] 사신을 양(梁)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2월에 양 고조(高祖)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봉하여 말하기를, “[중략] 그의 정성이 지극하여 짐은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옛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使持節) 도독(都督) 백제제군사(百濟諸軍事)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으로 봉함이 가하다.”라고 하였다.

- ① 서울 석촌동 3호 고분 ② 부여 능산리 고분
- ③ 익산 쌍릉 ④ 공주 무령왕릉

5.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백제 무령왕과 관련된 사료이다. 중국 남조의 양과의 교류 모습, ‘영동대장군’ 등의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정답 해설]

④ 공주 무령왕릉은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고분군 내에 있는 백제 제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다.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무덤으로, 무덤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무덤임이 밝혀졌다.

[오답 피하기]

- ① 석촌동 3호분은 계단식 돌무지무덤으로, 고구려 유이민 세력이 백제 건국을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 ② 무령왕릉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위치하고 있다.
- ③ 익산 쌍릉은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백제 말기의 굴식돌방무덤이다. 북쪽의 것을 ‘대왕묘’, 남쪽의 것을 ‘소왕묘’라 하는데, 대왕묘는 무왕, 소왕묘는 선화공주의 무덤이라는 설이 있다.

6.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

- ①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②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 중계무역을 해 왔다.
- ③ 소백산맥 이남에서 이례적으로 비옥한 농경 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 ④ 포상8국(浦上八國)의 난을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6. 정답 ②

[정답 해설]

② 김해의 금관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있어 해상 활동에 유리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생산된 철을 낙랑군과 왜에 수출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금관가야는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 ③ 소백산맥 이남의 비옥한 농경 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한 것은 고령의 대가야이다.
- ④ 포상8국의 난은 남해안 일대에 있었던 8개의 소국이 가야를 침략하여 일어났던 사건이다. 즉 신라 나해왕 14년(209)에 보라국·고자국·사물국 등 포상 8국이 가야를 침략하려고 하자 가야 왕자가 와서 구원을 청하였고, 이에 신라군이 구원하러 가서 8국 장군을 죽이고 6천 명을 잡아 돌아왔으며, 그 3년 후에도 또 한 차례의 침공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사건의 결과 가야에서는 왕자를 신라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다음 기록이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 옳게 서술한 것은?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준비가 있어서,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른 것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지고 백성들이 사치와 호화를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의 진기함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비야함을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에 빠지고 풍속이 쇠퇴하여 없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감히 옛 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 ① 중앙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방 호족이 득세하였다.
- ② 평민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어서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 데도 숯을 사용하였다.
- ③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 주고 추수기인 가을에 돌려받는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 ④ 국제 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7. 정답 ④

[자료 분석]

제시문은 신라 하대 흥덕왕 대 내려진 사치 금지령(834)의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④ 신라 하대 문성왕 때에는 국제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기도 했다(846).

[오답 피하기]

- ① 신라 하대에는 농민에 대한 강압적 수취와 흉년 등으로 인해 자영농이 몰락하였다. 몰락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었다.
- ② 평민이 아닌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왕(헌강왕)이 좌우 신하들과 함께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서울의 민가들이 즐비하고 노래와 음악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간에서 집을 기와로 덮고 띠풀로 지붕을 이지 않는다 하고, 밥을 숯으로 짓고 땀나무를 쓰지 않는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라고 하였다. 민공이 대답하기를 “신 또한 일찍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 ③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실시한 빈민 구제 정책이다.

8.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틀리게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무예 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관은 음서제도보다는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하였다.
- ② 승과는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 ③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하여 과거에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④ 원칙적으로 대역죄나 불효·불충죄를 저지르지 않은 양인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8. 정답 ①

[정답 해설]

- ② 승과는 광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며, 교종선과 선종선이 있었다. 교종선은 교종의 도회소(都會所)인 개경(開京)의 왕륜사(王輪寺)에서, 선종선은 선종의 도회소인 개경의 광명사(廣明寺)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 ③ 과거제는 신분적 특권 대신 실력을 기준으로 관인층을 선발함으로써 학문 소양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는 음서 제도가 폭넓게 운용되었고, 과거에 급제하고도 곧바로 관리로 임명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 ④ 과거에는 대역죄나 불효, 불충을 저지르지 않은 양인이면 응시할 수 있었다.
- ※ 이의 제기 가능 : 고려시대 향·소·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양인 중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5역(逆)·5천(賤)·불충(不忠)·불효(不孝)·향(鄉)·부곡(部曲)·악공(樂工)·잡류(雜類)의 자손들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고려사 -

[오답 피하기]

- ① 고려 시대에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무관을 선발하기 어려웠다.

9.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변화가 아닌 것은?

왕이 원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략] 말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先王)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① 원나라의 순제가 주원장의 군대에게 패해서 사망했다.
- ②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다.
- ③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을 보호하였다.
- ④ 두 차례의 홍건적 침입을 당하며 왕이 복주(안동)까지 피신하기도 하였다.

9. 정답 ③

[자료 분석]

제시문의 ‘왕’에 해당하는 인물은 공민왕이다. 변발과 호복을 입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공민왕의 재위 기간은 1330년에서 1374년이다.

[정답 해설]

- ① 원의 순제는 주원장(명 태조)에게 패해 북방으로 도망친 후 1370년 병사하였다.
- ② 공민왕은 1356년 대대적인 반원운동을 전개하면서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임명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도록 했다.
- ④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은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 고려를 침입했다. 2차 침입 당시에는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다.

[오답 피하기]

- ③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또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10. 고려시대의 예술 및 문화에 대하여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은?

- ①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다포 양식이다.
- ② 사치스러운 귀족 문화와 불교 의식의 수요가 결합하면서 다양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은입사, 나전 칠기 및 상감청자 등을 들 수 있다.
- ③ 무신 집권기에는 패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유행하였는데, 이후 신진 사대부 사이에서는 경기체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속요가 각각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이 계승되기도 하였지만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안동 이천동 석불, 파주 용미리 석불 입상과 같은 거대 석불도 조성되었다.

10. ①

[정답 해설]

- ② 고려 시대에는 은입사, 나전칠기, 상감청자 등 화려한 공예 기법이 발달하였다. 은입사는 청동기 표면을 파내고 실처럼 만든 은을 채워 넣어 무늬를 장식하는 기법이며, 나전칠기 공예는 옷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나전칠기 공예는 조선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③ 무신 정권기 민간에 구전되는 이야기를 일부 고쳐서 한문으로 기록한 패관 문학과 가전체 문학이 유행했다. 이 시기의 대표적 문학 작품으로는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제현의 『역옹패설』 등이 있다. 고려 후기 신진사대부들은 향가 형식을 계승하여 새로운 시가인 경기체가를 창작했으며,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등 서민의 생활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드러낸 작자 미상의 고려 가요(속요)가 유행했다.
- ④ 고려 초기에는 대형 철불이 많이 조성되었는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여래 좌상이 대표적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나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 입상처럼 지역 특색이 잘 드러나 거대한 불상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신라 이래의 전통 양식을 계승한 작품으로는 영주 부석사 소조여래 좌상이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다. 다포 양식 건축물로는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 석왕사 응진전 등이 대표적이다.

11.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은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다.
-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을 담당하였다.
- ③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예문관은 국왕의 교지 작성을 담당하였다.

11. 정답 ①

[정답 해설]

- ② 한성부는 서울의 행정과 치안, 사법(토지·가옥에 관한 소송 담당)을 담당하였다.
- ③ 의금부는 국왕 직속 특별 사법 기관이고,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 ④ 예문관은 국왕의 교서 작성을 담당한 관서이다.

[오답 피하기]

- ① 조선 시대 사헌부와 사간원을 합쳐 양사(대간)라 부르는데, 양사는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하는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12. 다음 중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싼 대립으로 두 파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김효원 등 신진 관료는 ㉠, 심의겸을 중심으로 한 기성 관료는 ㉡이라 하여 분당(分黨)되었다.

- ① ㉠은 대체로 이이와 성혼의 학맥을 이었다.
- ② ㉡이었던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켜 기축옥사가 발생하였다.
- ③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 출신이 주도하였다.
- ④ ㉠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하였다.

12. 정답 ④

[자료 분석]

자료의 ㉠은 동인 ㉡은 서인이다. 선조 때에는 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신진 사림의 지지를 받던 김효원과 왕실의 외적이면서 기성 사림의 신망을 받던 심의겸 사이에 이조 전랑직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분당이 이루어져, 신진 사림을 중심으로 동인이, 기성 사림을 중심으로 서인이 형성되었다.

[정답 해설]

- ④ 1589년에 동인인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고 모반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었다. 서인 세력은 이를 정권을 장악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정여립 모반 사건을 확대하였고, 서인 정철의 주도 아래 수많은 동인의 인물들이 탄압을 받았다. 1591년에는 서인 정철이 광해군을 세자로 정할 것을 주청(건저의 사건)했다가 선조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동인은 서인 정철의 처벌 수위를 놓고 북인(강경파)과 남인(온건파)으로 분열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동인은 이황과 조식, 서경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진 세력이 참여하여 먼저 분당의 형세를 이루었다. 반면에,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문인이 가담함으로써 분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 ② 정여립은 서인이었다가 동인에 가담한 인물이다. 정여립 모반사건을 계기로 동인의 인물들이 박해를 받은 기축옥사(1589) 일어났다.
- ③ 임진왜란 시기 의병 활동을 주도한 것은 북인(정인홍·곽재우 등)이다.

13. 밑줄 친 ‘이 역사’를 편찬한 왕이 재위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왕께서 학자들에게 명하여 선명력과 수시력 등 여러 역법의 차이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인지, 정흠지, 정초 등에게 명하여 『태음통궤』와 『태양통궤』 등 중국 역사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이 역사(曆書)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①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이 과거강의 건주위를 정벌하였다.
- ② 함흥부 유향소 별감 이시애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 ③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관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를 실시하였다.
- ④ 사병을 모두 혁파하고 양인개병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13. 정답 ①

[자료 분석]

밑줄 친 역서는 세종 때 편찬한 칠정산이다. 『칠정산』 내편은 총 3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442년(세종 24) 정인지와 정흠지, 그리고 정초 등이 만들어 1444년(세종 26)에 출판하였다. 원나라의 수시력과 명(明)나라의 『태음통궤』 및 『태양통궤』를 참고로 하여 수시력의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정답 해설]

- ① 세종은 1433년 평안도 도절제사 최윤덕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과거강(동가강)에 살던 건주위(建州衛)의 여진 추장 이만주 세력을 정벌하게 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② 이시애의 난은 1467년 세조 때 일어났다.
- ③ 관수관급제는 성종 때 실시되었다.
- ④ 태종 때의 사실이다. 태종 이후 사병을 모두 폐지하고,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모든 양인 남자는 군역을 지게 하는 양인개병제를 실시하였다.

14. 밑줄 친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익희가 상소하여 말하기를, “요즘 이 기구가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취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걸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할 일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름은 ‘변방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비빈 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라고 하였다.

- ①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16세기 초 상설 기구로 설치되었다.
- ②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등에 의한 세도정치 시기에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 ③ 흥선대원군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 ④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14.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의 밑줄 친 이 기관은 비변사로, 사료는 비변사의 기능 확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정답 해설]

- ③ 흥선 대원군은 세도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비변사를 축소·폐지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켜 정치와 군사를 분리시켰다.

[오답 피하기]

- ① 비변사는 16세기 초 중종 때에 여진족과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회의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16세기 중엽 명종 때 을묘왜변(1555)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되었다.
- ② 세도 정치기에는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하였다.
- ④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의정부와 6조 중심의 행정 체계는 유명무실해졌다.

15. 밑줄 친 ‘왕’이 재위한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채제공이 아뢰기를, “평시서로 하여금 30년 이내에 신설된 시전을 모두 혁파하게 하십시오. 형조와 한성부에 분부하여 옥의전 이외에는 금난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 ① 경기도에서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② 전세(田稅)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을 처음 실시하였다.
- ③ 백성의 여론을 직접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였다.
- ④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15. 정답 ④

[자료 분석]

사료는 정조 때 시행된 신해통공에 관한 내용이다. 신해통공은 1791년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건의로 옥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조치이다.

[정답 해설]

④ 정조는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오답 피하기]

① 광해군 ② 인조 ③ 영조에 대한 설명이다.

16. 다음 사건 중 발생 연도가 다른 하나는?

- ① 박문국이 설립되어 『한성순보』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 ② 전환국이 설립되어 당오전(當五錢)을 발행하였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원산학사가 설립되었다.
- ④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었다.

16. 정답 ④

[정답 해설]

- 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 관보의 성격을 지닌 한성순보는 1883년에 창간되었다.
- ② 1883년에는 화폐 주조 기관인 전환국이 설치되고, 당오전이 발행되었다.
- ③ 1880년 원산이 개항되어 일본 상인들이 활동하자, 덕원 부사 정현석과 함경도 덕원 주민들은 신지식을 교육해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883년 최초의 근대적 사립 학교인 원산학사를 설립하였다.

[오답 피하기]

④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제물포와 노량진 사이에 개통되었다.

17. 다음 중 3·1운동의 배경·전개·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 처리에 적용되었다.
- ②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
- ③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서도 만세 운동이 벌어졌다.
- ④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 민족 운동이다.

17. 정답 ①

[정답 해설]

- ② 여운형과 신규식 등 신한청년당(신한청년단)은 파리 강화회의가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리 강화회의에 보낼 독립 청원서를 작성해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였다.(1919. 1)
- ③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기도 하였다.
- ④ 3·1 운동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승전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제국주의 운동이면서 민족적인 항일 운동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다.

[오답 피하기]

- ① 윌슨의 민족 자결 주의(1918)는 각 민족의 정치적 운명은 다른 민족의 간섭 없이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윌슨이 말한 민족 자결은 독일과 같은 패전국이 지배하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전승국의 식민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8. 다음 중 1919년 9월에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 국무총리에는 안창호가 임명되었다.
- ②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군사조직인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였다.
- ③ 초대 경무국장(警務局長)으로 김구가 재직하였다.
- ④ 1936년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고 항일 통일 전선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18.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백범 김구는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 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국무총리에는 이동휘가 선임되었다.
-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일 전쟁 발발(1937) 후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④ 동북 항일 연군의 조선인 간부들이 1936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을 실현한다는 목적 아래 조국 광복회를 조직하였다.

19.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이 아닌 것은?

제39조 제1항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제1항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 ① 판문점에서 북한군 30여 명이 도끼와 낫 등으로 유엔군과 한국군을 공격하였다.
- ② 방직회사인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다.
- ③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 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 ④ 헌법을 부정·반대·왜곡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되었다.

19. 정답 ③

[자료 분석]

자료는 7차 개헌인 유신헌법(1972. 12)의 내용이다. 따라서 유신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은 1976년의 일이다.
- ② 가발 생산 업체인 YH 무역이 1979년에 폐업하자, 종사자들은 정상화를 요구하며 야당인 신민당사에 들어가 농성하였다. 농성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나, YH 사건은 유신 체제 몰락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④ 긴급 조치는 1974년 1월에 1호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1975년 5월에 9호가 발표되었다. 특히 긴급 조치 9호는 10·26 사태 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오답 피하기]

- ③ 1·21 사건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현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인 무장공비 31명(김신조 등)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한 사건이다.

20. 다음에 제시한 남북한 간 합의문을 발표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남북 기본 합의서 ㉡ 4·27 판문점 선언
 ㉢ 7·4 남북 공동 성명 ㉣ 6·15 남북 공동 선언

- ① ㉠-㉢-㉡-㉣ ② ㉡-㉠-㉢-㉣
- ③ ㉢-㉡-㉠-㉣ ④ ㉢-㉠-㉡-㉣

20. 정답 ④

[정답 해설]

- ㉢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 박정희 정부) -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12, 노태우 정부) - ㉣ 6·15 남북 공동 선언(2000. 6, 김대중 정부) - ㉡ 4·27 판문점 선언(2018. 4 문재인 정부)